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9.19(금) ~ 2025.9.25(목)

제공일시 2025 10 3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9.19(금) ~ 2025.9.25(목)

제공일시 2025 10 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## 글로벌 정책

### 1. 美, 리튬 광산 산다...전략산업에 국가 개입 확대

-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최대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 '태커패스' 관련 정부 대출 조건의 재협상 과정에서 최대 10% 지분을 요구함
- 백악관은 공적 자금 지원이 납세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, GM이 태커패스 광산에서 생산되는 리튬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음. 리튬아메리카스에는 경영 통제권 일부를 정부에 넘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짐
- 이번 협상은 리튬아메리카스와 GM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확대되는 사례로 평가됨

[\(한국경제 2025.9.24\)](#)

### 2. 올 상반기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'10% 늘었다'

- 국제싱크탱크 제로카본애널리틱스는 올 상반기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386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% 증가했다고 발표함
- 전체 에너지 투자 3조3000억달러 중 2조2000억달러가 저탄소 에너지 분야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
- 제로카본애널리틱스는 미국의 반친환경 정책에도 중국과 유럽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글로벌 투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함

[\(뉴스트리 2025.9.24\)](#)

### 3. 브라질, 열대우림 영구기금 첫 출연...글로벌 탄소시장 연합 구상 계획도 밝혀

- 브라질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열대우림 영구기금(TFFF)에 10억달러를 출연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약속은 기금의 첫 투자 사례임
-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제30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(COP30)를 앞두고 유엔 총회 고위급 행사에서 산림 보존 성과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하는 글로벌 탄소시장 연합 구상도 함께 제시함
- 브라질 정부는 두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적 기후 협력과 국내 산림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임

[\(임팩트온 2025.9.24\)](#)

## 국내 정책

### 1. 정부 “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도 검토해야”

-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(EU)과 같은 내연차 판매 제한 방안을 논의함
- 24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' 수립을 위한 세 번째 토론회에서 48%·53%·61%·65%의 4가지 감축 후보안을 제시했으며, 감축 시나리오별 수송 부문 배출량 감소 효과를 공개함
-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연비 개선 등을 통해 도로 부문에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힘

[\(천지일보 2025.9.24\)](#)

### 2. '공해 보전 국제조약', 내년 초 발효... '30X30 협약' 발판 마련

- 전 세계 바다의 30%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'30X30 목표' 달성을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(BBNJ)이 내년 1월 17일부터 발효됨
-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, 프랑스, 칠레, EU 등 60개국 이 비준을 완료해 발효 기준을 충족했음
- 협정은 서명국 112개국 중 60개국 이상 비준 후 120일이 지나 발효되며, 이번 발효는 국제 해양 보전 체계 강화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

[\(한겨레 2025.9.22\)](#)

### 3. 내년 기업 탄소배출권 부담 4배 급증

- 정부는 내년 기업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부담 예산을 약 7700억원으로 편성했음.
- 이는 올해 예상 부담액보다 4배 가까이 높음
-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관세 전쟁, 법인세 인상 등 대외 환경 악화 속에 탄소배출권 규제가 지나치게 빠르게 도입돼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

[\(한국경제 2025.9.23\)](#)

## 글로벌 기업

### 1. 美·中, 유럽서 배터리 재활용 동맹…韓 이중압박

- 중국 거린메이(GEM)와 미국 어센드엘리먼츠가 유럽에서 배터리 재활용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함. 양사는 유럽에서 블랙 매스를 회수해 인도네시아 GEM 시설에서 재활용한 뒤, 이를 다시 유럽으로 수출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
-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협력 모델을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

[\(디지털타임스 2025.9.24\)](#)

### 2. '전기 먹는 하마' AI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에…MS, 칩 표면에 냉각수 흘리는 기술 개발

- 마이크로소프트(MS)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칩 표면에 직접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신기술을 개발함
- 기존에는 칩 외부 냉각판 방식이 주류였으나, MS는 마이크로미터 단위 유체 제어 기술인 마이크로플루이드스를 적용함. 해당 기술은 현재 시제품 단계에 적용되고 있음

[\(조선비즈 2025.9.24\)](#)

### 3. 블랙록, 한국 AI 허브 투자 추진…증권업계 "글로벌 자본 유입 모멘텀" 기대감 '솔솔'?

-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뉴욕에서 MOU를 체결하고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함. 협력 방향은 국내 AI·재생에너지 인프라 결합, 아태 지역 AI 허브 구축,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의 세 가지로 정해짐
- 블랙록은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(AIP)에 참여하도록 하고 향후 5년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방침임

[\(한스경제 2025.9.23\)](#)

### 4. 美법원, 오스테드 손 들어줘…중단됐던 해상풍력 공사 재개

- 덴마크 오스테드가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안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'레볼루션 윈드'의 공사를 재개하게 됨
-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공사 중단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명령에도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. 이번 결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됨

[\(임팩트온 2025.9.23\)](#)

## 국내 기업

### 1. LG엔솔 호주 광산업체와 탄산리튬 공급계약 체결, 미국 공급망 확보

-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앤슨리소시스와 연간 최대 4000톤 규모 탄산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함
- 계약에 따라 앤슨리소시스 미국 자회사 'A1 리튬'이 유타주 패러독스 분지에서 채굴한 탄산리튬을 2028년부터 5년간 공급받게 됨
- 계약은 5년 연장 가능 조항이 포함돼 미국 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

[\(비즈니스포스트 2025.9.24\)](#)

### 2. 현대건설, 국내 첫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준공...“하루 1톤 청정수소 생산”

- 현대건설은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준공함
- 이번 프로젝트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'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'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임
- 연말까지 시운전을 마친 뒤 2026년부터 하루 1톤 이상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임

[\(한국면세뉴스 2025.9.24\)](#)

### 3. CJ제일제당, 바이오사업부문 자회사 美 케민인더스트리즈에 매각

- CJ제일제당은 중국 바이오 자회사 '유텔'을 미국 케민인더스트리즈에 매각함
- 유텔은 2020년 CJ제일제당이 인수한 효소 중심 비주력 사업으로, 5년 만에 정리하는 사례임
- 매각은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 바이오사업 및 신성장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됨

[\(뉴스핌 2025.9.24\)](#)

### 4. '투자 가속' 포스코홀딩스, 일본제철 지분 매각 2400억 확보

- 포스코홀딩스는 일본제철 지분 785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약 2388억원을 확보함
- 이는 보유 지분 1.5% 중 절반 수준임
-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, 인텔리전트 팩토리, 북미·인도 제철소 투자 확대와 함께 국내 해운사 HMM 인수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됨

[\(아시아투데이 2025.9.24\)](#)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9.19(금) ~ 2025.9.25(목)

제공일시 2025 10 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## EU 산림전용방지법 또다시 시행 연기되나...산업계 반발·IT시스템 준비 지연

- 유럽연합(EU)은 산림전용방지법(EUDR) 시행을 IT 시스템 준비 지연을 이유로 다시 1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음. 해당 법은 대두, 쇠고기, 코코아, 커피, 팜유, 천연고무, 목재 등 주요 원자재가 산림 파괴와 무관하게 생산됐음을 증명해야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제스카 로스웰 환경 담당 집행위원이 시행 연기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음. 로스웰 집행위원은 IT 시스템이 방대한 데이터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무역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술적 문제를 연기의 직접 사유로 제시함
- 당초 대기업은 2024년 12월, 중소기업은 2025년 1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미 1년 연기된 상태에서 추가 연기 논의가 진행 중임
- 유럽연합 역내에서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. 폴란드,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자국 기업들의 추적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연기와 규제 완화를 요구함
- 미국, 브라질, 인도네시아 등 교역국들도 수출 위축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, 특히 미국은 자국 원자재의 규제 면제를 주장함
- 반대로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. 유럽의회 일부 의원과 환경단체는 이번 사태가 집행위의 정치적 의지 부족과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함
- 국제환경단체 펀(Fern)의 니콜 폴스터러는 법 시행 지연이 숲 파괴와 극단적 기상이변 증가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으며, WWF 유럽정책 책임자 안케 술마이스터-올덴호브는 EU 집행위의 무능과 정치적 의지 부족을 드러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함
- 지구환경단체 어스사이트(Earthsight)의 샘 로슨 대표는 연기안이 준비하지 않은 기업을 보상하고 성실히 투자한 기업을 불이익에 빠뜨린다고 우려함
- EU 내에서는 소규모 생산자 보고 의무 면제, 최종 운영자에게만 실사 책임 부과 등 규제 완화 논의도 병행돼 제도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

([임팩트온 2025.9.24](#))